

# 제41회 光日 報勳大賞 施賞式

일시 | 2014년 6월 11일(수) 15:00 | 주최 | 光州日報社 |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光日 보훈대상 시상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41번째를 맞고 있는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당에서 열렸다. 수상자들(꽃다발 든 왼쪽부터 상이군경 부문 이영주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박소영씨, 순직군경 미망인 부문 김복순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박인찬씨, 무궁수훈자 부문 유길성씨 이상 5명)과 박동경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천경자 생사 몰라 수당 지급 중지”

예술원, 2월부터 중단...큰딸 이해선씨 ‘회원 탈퇴’ 의사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흥 출신 원로화가 천경자(90) 화백의 가족이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에 회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원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매달 지급되는 180만원의 수당을 잠정적으로 지급 중지했다”며 “천 화백의 큰딸 이해선(70·섬유공예가)씨가 지난 3월 예술원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이 고령인데다 생존 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문이 무성해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이씨에게 천 화백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근황이 확인되면 곧장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작품 98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뉴욕으로 떠났

으며, 지난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이씨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 화단에서 천 화백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 생존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역 한 원로화는 “지역에서는 물론 서울 화단에서도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술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그동안 천 화백의 소식 이씨를 통해서만 미술계에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전시 등 그동안 국내서 열린 전시가 모두 이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예술원 회원은 예술가에게는 최고 영예다. 예술경력 30년 이상으로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하며 대상자가 돼도 회원들의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천 화백은 현재 회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

## 박준영 지사 집무실은 ‘팽목항’

세월호 참사 이후 50여일 찾아... 퇴임 하루전까지 일정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퇴임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4년 6·5 보궐선거에 당선돼 도지사에게 오른 지 10년 만이다. 그러나 명예로운 퇴임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16일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의 퇴임 구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일을 제치고 진도로 거의 매일 출퇴근하며 유족, 실종자 가족 등을 뒷바라지 한 박 지사는 퇴임식 바로 전날인 오는 29일에도 진도 팽목항 방문 일정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초기 한 때 유가족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그의 계속된 ‘진도행’에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유가족들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동행한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한 직원은 “오전에는 체육관, 오후에는 팽목항을 드나들며 헌신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직원들도 느낀 것이 많았다”며 “50

일 넘는 기간 동안 2~3일을 제외하고 주말과 휴일까지 진도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와 국회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지사는 12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오전에는 업무를 챙기고, 오후에는 진도를 찾아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을 돌볼 예정이다. 도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10년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묵묵히 되돌아보고 현장도 챙겨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참사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도지사로서의 일정은 임시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농협 세미나 등 정도다. 박 지사는 틈틈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마을, 귀농·귀촌 도시민 거주지 등을 찾으면서 도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을 들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구례 오산 사성암 명승 지정예고

구례군 문척면 오산에 자리한 사성암이 명승(名勝)으로 지정예고됐다. 구례군은 “문화재청이 ‘구례 오산 사성암’을 명승(국가지정문화재)으로 지정예고 했으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해발 530m의 오산에 있는 사성암(전남도 문화재자료 제33호)은 백제 성왕 22년

(544)에 연기조사가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원래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곳에서 원효·의상·도선·진각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하였다 해서 사성암으로 개칭됐다고 한다. 암자 역사전에는 고려시대 초기 작품인 마애여래입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이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kwangju.co.kr

## “편견과 가족 외면이 ‘염전 노예’ 원인”

국회서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대책 토론회

서울 청량리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완도 신의도 염전을 소개받은 김모씨. 그의 소식을 염전 주인이 가족에게 알렸지만 김씨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노숙을 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의도로 온 또 다른 김모씨의 가족은 염전 주인에게 “입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데리고만 있어 달라”며 각서까지 써줬다. 또 신의도 염전에서 일을 한 최모씨, 조모씨 등 6명의 입금은 가족 명의로 월급이 입금됐고, 한 지적장애 3급의 염전 노동자의 임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은 그의 가족이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2월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염전 노예’ 사건의 이면에는 가족의 무관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압적인 신체 구속보다 더 무서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외면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11일 신안군은 “지난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흔히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

건’으로 불리는 염전 장애인 노동 문제는 지난 2월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낸 일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2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와 국회 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위원회 등이 그동안 실태조사를 펼쳤고, 대책마련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현황 파악이 가능한 총 61명의 피해자 중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가 47명(77.1%)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피해자가 염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이 방치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염전에 맡기고 그 임금을 받아간 사례도 많았다.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처럼 감금과 폭력이 난무하는 ‘노예’의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있으며 염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조사 61명중 47명 가족 있어  
임금만 챙긴 사례도 수두룩  
55% 폭언·폭행 피해 경험  
직업훈련·직업소개 이뤄져야



일부 폭력도 확인됐다. 또 피해자 중 원활한 응답이 가능한 55명 중 폭언·폭행 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는 53명(96.4%)에 달했다. 이들의 염전 유입 경로로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유입된 경우가 조사에 응답한 54명 중 34명(6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휴대전화와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명(29.6%)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추악한 염주들의 행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 염전 주인은 500만원을 최모씨(지적장애 2급)의 속옷에 꿰매주고는 무작정 버스에 태워 인천으로 보내버렸다. 고항이 인천인 것만 기억하던 최씨는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17년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과제도 제시됐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책이 늘어야 하고, 적절한 직업훈련과 직업소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번호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